

“수도권은 하나”... 민주당 후보들, 교통·주거 등 공동 대응

정원오·추미애·박찬대 후보 확정
‘수도권 행정협의회’ 구성에 합의
李정부 정책 지원·공동 공약 추진
지방선거 승리·정책 시너지 강조

6·3 지방선거 서울·경기·인천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확정됐다. 서울시장에 정원오, 경기지사 추미애, 인천시장에 박찬대 후보가 각각 최종 확정된 것. 이들은 12일 수도권 공동공약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세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 앞에서 민주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원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인 회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전쟁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 이재명 정부 총력 대응 뒷받침 및 공동 공약과 공동 대응 방안 마련 ▲공동 일정·메시지를 통해 수도권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연대 비전 제시 ▲수도권 일원의 교통·주거·산업 등 공동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행정협의회 구성 등이 담겼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민주당 수도권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앞 벤치에서 열린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 ‘원팀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광역단체장 후보 3인은 민주당이 함께 할 때 가장 강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서울·경기·인천의 협력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원오 후보는 이날 “서울·경기·인천은 대서울권이라고 얘기하는 하나의 단위가 됐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서로 영

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데 한 명이 잘 돼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중동 전쟁 위기로부터 잘 견디고 극복해 나가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수도권 세 지방정부가 의기투합하고 힘을 합쳐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추미애 후보는 “경기도는 명실상부 1420만의 인구를 거느린 작은 대한민국”이라며 “교통, 주거, 산업 모든 문

제가 수도권이 일체화돼서 함께 문제를 풀 때 대한민국이 다시 비전을 가질 수 있고 그 모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으로 늘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찬대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이재명 정부 진짜 대한민국의 꿈이 중앙정부를 넘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하면서 의논할 것”이라며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동 공약을 통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데 최선 노력의 다하겠다. 전국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 공약을 논의해 풀어가겠다”고 했다.

추 후보는 공동 공약 중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교통이 가장 중점 과제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체계와 예산 살펴야 하는 문제라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빠르게 점검할 수 있다면 속도를 내서 해보고 논의해서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후보는 이번 간담회 배경과 관련해 “(서울·경기·인천) 2600만명의 삶이 하나의 수도권이라는 공동 운명체 성격을 갖고 있어 함께 내는 공약이 모두 중요하다”며 “정 후보가 국회에서 모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앞으로 자주 만나서 의논할 것”이라며 “합의한 것을 공동 공약으로 내세를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與 경선 ‘이번’... 현역 단체장 줄줄이 탈락

김영록 전남도지사만 결선 진출
일부 후보 논란·감점 요인 등 영향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광역단체장들이 12일까지 진행된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대거 탈락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만 남아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에 진출한 상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경기·광주·전북·전남·제주 5곳만 차지했다. 이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은 현역 단체장 중 가장 먼저 경선에서 탈락했다. 전남광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강 시장은 신정훈 의원과 단일화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신 의원이 승리했다. 다만 신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

하자, 강 시장은 신 의원과 함께 김영록 지사를 지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정치권에서조차 탈락을 예상하지 못한 현역 단체장이다. 김 지사는 여론조사상 다른 후보에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김 지사가 당원에게 대리기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의 감찰을 받았고, 곧바로 제명됐다. 김관영 지사는 즉각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기각됐다. 다만 김 지사는 경선에 끝까지 참여한 상황은 아니라, 탈당 후 무소속 출마는 가능하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다. 현역 단체장이라는 점에서 추미애 의원과 결선을 치를 것이라는 전

망이 많았지만, 경선 결과 추 의원이 김 지사·한준호 의원과의 3자 대결에서 과반을 획득하며 후보로 확정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현역 단체장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돼 감점을 받았다. 본경선 결과, 오 지사는 20% 감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떨어졌다. 제주지사 후보는 위성곤·문대립 의원이 결선투표를 하고 있다. 다만 문 의원도 과거 공천 불복 탈당 전력으로 25% 감점을 받았는데, 이는 결선에서도 적용된다.

이처럼 현역 단체장이 대거 탈락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당내 평가다. 이들은 대부분 당내에서 비주류로 분류된다. 다만 김관영 지사의 경우 대리기사비 지급 건이 아니었다면 무난하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광역단체장들이 12일까지 진행된 6·3 지방선거 후보 경선을 통해 대거 탈락했다. 왼쪽부터 강기정 광주시장, 김관영 전북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뉴스시스

경선을 통과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현재까지 유일하게 남은 현역 단체장인 김영록 전남지사는 민형배 의원과 결선을 치러야 한다. 김 지사와 민 의원의 결선 투표는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결과는 14일 오후 6시 투

표 종료 이후 집계 완료되는 대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이번 6·3 지방선거에 나서는 현역 단체장이 한 명도 없을 것인지, 아니면 김 지사가 전남광주시장에 출마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예진 기자

민주당, 울산 남구갑 ‘신인 영입’... 부산은 하정우 차출 검토

“울산 남구갑 재보궐 후보 먼저 정리
정청래, 이번 주 하정우 출마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12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두고 울산 남구갑 후보를 먼저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북구갑 재보선과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이번 주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만나 출마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 저희들이 울산(남구갑) 지역에 대한 재보궐(선거) 후보를 먼저 정리할 생각”이라며 “울산 출신의 아주 유능한 인재를 저희들이 발굴해 현재 접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울산 남구갑은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인 김상욱 의원의 지역구로, 재보선 실시 대상이 될 예정이다. 조 사무총장은 “그 결과는 조만간 공개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분을 영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차출설과 관련해서 “울산 지역의 새로운, 좋은 인재를 영입해 우리 당 후보로 하겠다는 것과 하정우 수석을 영입해 후보로 내고자 하는 것은 같은 이유이자 맥락”이라며 “최적의, 최선의 후보를 만들기 위해 저희들이 속고 과정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부산의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좋은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재수 의원 후임자로 하 수석이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연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도 “당 사무총장, 중진 의원도 (하 수석을) 만났고, 이번 주에 (정청래)대표도 만나 뵙고 직접 출마 요청할 계획”이라며 “처음에 완강히 고사하셨는데 당 대표께서 요청하시면 그에 따라 큰 결단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장동혁 “韓 위기”... 美 공화당 인사 회동

IRI 초청으로 워싱턴DC 방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7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기 위해 지난 11일 출국했다. 이번 일정은 친공화당 성향의 미국 비영리단체인 국제공화연구소(IRI) 초청으로 성사됐다.

장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어제, 세계의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 워싱턴으로 출발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코 외면할 수 없기에 나아간다”고 적었다.

장대표는 “저는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의 분열과 고통의 시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와 법치,

시장 질서까지 흔들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위기의 대한민국 앞에서 우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처절한 마음으로 싸우는 이유는 단 하나”라며 “바로 이 길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고 했다.

장대표는 IRI 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비롯해 한반도 현안 등을 주제로 연설할 계획이다. 미 상·하원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인사들과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조 윌슨(사우스캐롤라이나), 마이크 켈리(펜실베이니아) 하원 의원 등 미 연방의회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소속 의원들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